

'익산 다우리' 서 맞춤형 복지 만끽

여성회관·가족센터 등 5개 기관 입주... 교육·상담·문화 활동 등 까지 한 곳서 지원

익산시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복지 공간 '익산 다우리'를 본격 운영한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다우리'는 다양한 국적과 성별, 세대를 아우르며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공간이다. 이름에도 '우리'라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익산시의 꿈이 담겼다.

모현동에 동지를 틈 다우리는 연면적 2,934㎡의 규모로 지난해 말 준공했다. 현재는 5개 기관이 입주해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다우리' 운영을 총괄하는 여성회관은 주로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달부터는 △자격증 취득 △전통문화 △웰빙건강 △취업·창업 △디지털·글로벌 양성 △취미·교양 등 6개 과정이 개설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해 52명의 전문 강사를 선별했다.

지난달 17~21일 진행된 상반기 정규 강좌 수강생 모집에는 7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고, 모집 첫날 대부분의 강좌가 마감됐다. 특히 '힐링테라피 요가', '건강한 베이킹 클래스' 등 신규 강좌와 합



계 '실버댄스', '노래교실(남녀 혼성)' 등 수강생 의견을 반영한 강좌들이 주목받고 있다.

교육 과정은 3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월 1만 원이다. 또한, 우수 자원봉사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은 연 1회 1강좌에 한해 수강료가 면제된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가족센터는 '나의 행복은 가족으로부터!'라는 목표 아래,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변화를 지원한다.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 부모 초청 지원, 가족 체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가족 간 문

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개인·부모·부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1호점)는 0~5세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돌봄 공간이다. 건물 1층에 자리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놀이 활동을 운영하며, 공동육아 실천과 육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공동육아나눔터와 건물 1층을 함께 쓰고있는 다함께돌봄센터(9호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학습 지도, 신체 활동,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는 12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연합 단체다. 여성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 장류 담그기, 팔기잼 만들기, 김장 김치 나눔 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다양한 기관이 한 공간에 모여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소통 행정 '눈길'

'주민과의 대화' 13개 읍면 방문으로 격의 없는 소통 이어가

시장 운영 방향과 지역 사업 공유·주민 건의 사항 청취 등

정현을 익산시장이 민생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현을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하루에 2개 읍면을 순회하는 일정을 소화하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을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난달 24일 함열읍·용안면을 시작으로 망성면, 성당면, 웅포면, 용동면 등 13개 읍면을 방문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정 시장은 올해 역점 추진하는 시장 운영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민생 소통 행보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함동면을 찾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환경도시사업 △현대화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오후에는 함리면을 방문해 △합리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초생활기점 2단계 등의 사업을 공유했다.

기초생활기점 2단계 등의 사업을 공유했다.

정 시장은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에서도 공감에 기반한 경청과 즉각적인 답변 제시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13개 읍면의 주민들도 주요 현안으로 △마을 안길 보수 △마을 오백길 가드레일 설치 △구거 정비 △중학교 인근 통학로 폐쇄회로(CC)TV 설치 △우수관 확장 요청 △소하천 정비 등을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갔다.

특히 정 시장은 간담회장 방문 전 각 읍면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는 등 세심한 행보를 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정 시장은 오는 14일 금마면·남산면을 찾아 읍면 지역 순회를 마치고, 동 지역은 향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주민과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5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기관 선정

679개 기관 대상 평가, 군산시 도내 유일 최고등급 획득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유일한 최고등급을 받아 시의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노력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을 점검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데이터 제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시는 △개방·활용 △품질 △관리 체계 등 3개 평가영역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제18기 익산농업인대학 입학식 개최

익산시가 지역 농업·농촌의 미래를 견인할 전문 농업인 양성에 나선다.

시는 6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신입생 12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18기 익산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오는 11월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되는 농업인대학은 △청년탈기초창반 30명 △쌀대체작물반 30명 △농산물가공반 25명 △산간농업반 40명으로 총 4개 과정에 125명이 참여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침수방지사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가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 침수 방지사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나 반지하 주택의 창문,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빗물의 건물 유입을 막는 차수관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최대 90%를 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예산을 2배로 늘려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이며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의 경우 최대 30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단,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피해 이력 많은 곳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3월 14일 금요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핵융합연 플라스마

기술연구소와 업무협약

군산시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스마기술연구소가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군산시청에서 6일 열린 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항근 이사장과 플라스마기술연구소 최용섭 소장, 연구진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앞으로 세 기관은 과학교육 프로그램인 '플라스마 스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이론뿐 아니라 실험과 체험 활동 등 더욱 흥미롭고 실질적인 학습을 지원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과학적 호기심을 기르고,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과학 기술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군산시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 교육 활성화 △지역 인재 양성 기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와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